

삼성SDI, 2차전지 수익성 호조로...

1/4분기 영업이익 670억원으로 11% 증가 ... PDP·태양광 사업은 부진

삼성SDI는 2012년 1/4분기 매출이 1조3767억원으로 13.9%,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11.0% 증가했다고 4월 27일 발표했다.

순이익은 1120억원을 기록했다.

세계적인 불황과 계절적 비수기로 PDP(Plasma Display Panel)와 태양광 부문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이 2011년 4/4분기에 비해 4.2% 감소했으나 2차전지 부문의 수익성 향상으로 영업이익은 50.4% 증가했다.

소형전지 사업은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8% 증가해 7430억원을 기록했다.

메이저들의 태블릿·스마트폰 신규모델 출시로 고용량 전지 수요가 증가했고 고부가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.

삼성SDI는 리튬이온전지 수요가 2/4분기에도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1/4분기에 비해 1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삼성SDI는 수요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형전지 세계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.

그러나 PDP 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판매량이 4/4분기에 비해 9% 감소한 170만대, 매출은 16% 줄어든 5200억원에 머물렀다.

다만, 2/4분기에는 PDP TV 수요가 동남아, 중남미, 중동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증가면서 1/4분기에 비해 8% 늘어나 31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삼성SDI는 스포츠 빅 이벤트 세트 프로모션에 적극 대응하고 성장시장에 최적화된 43인치 실속형 기종의 판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30>